



“개헌특위 자문위 시안, 혼동·비현실적에 금기 시도까지”

바른개헌국민연합·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의 ‘개헌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 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를 갖고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광윤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강화해 스위스 같은 연방 국가를 모델로 하되 최소한 준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연방제 분권개헌론을 제기했다”며 “그 골격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에 거의 반영됐다”고 했다. 또 “정의당의 개헌안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안이나 정부안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을 거의 수용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타협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 혼동 투성이다

그러나 이광윤 교수는 “자문위 시안이 이론적 혼동 투성이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고 하는데 국가의 권력을 형식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으로 보았을 때 입법권이 나 사법권을 분권하면 연방(입법과 사법), 또는 준 연방(입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연방국가의 支邦, 즉 국가 또는 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입법권을 분권하는 것은 정치적 분권”이라며

“지방분권이란 ‘행정적 분권’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권을 법인격 단체에게 분권 단체가 아니므로 스위스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단위가 없다”며 “시안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 비

법권을 분권하는 것은 최소한 지역주의(Regionalisme)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국가형태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모든 정치적 권력이 중앙에만 있는 단일국가”라 설명하고, “지방분권을 논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에 관하여만 말하여야 하고 준 연방국가인 스페인의 자치공동체나 이태리의 지역(Regione)는 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지방분권을 말한다면 자치공동체나 지역(Regione)밀의 단위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는데, 시안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자치공동체나 지역(Regione)을 말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자치공동체나 지역(Regione)을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의 단일국가의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면서 “특히 독일, 스페인 등 다수의 외국헌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일만을 지지하면서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 했다.

셋째로 이 교수는 “자치입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자치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을 말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을 분권 받은 기관이므로 행정입법일 수 밖에 없다”며 “우리만 유독 행정입법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인데 외국의 경우도 支邦 또는 準支邦(란트, 자치공동체, Regione등) 밀의 단위는 행정입법”이라 설명했다. 또 “스위스에서도 支邦인 Canton 밀의 commune은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와 마을 공동체 사이의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스위스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단위가 없다”며 “시안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 비

현실적이다

이광윤 교수는 시안이 “비현실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재정조정도 같은 것은 연방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안에 의하면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정부의 의견에 따라 좌우므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제 118조 2항 3항의 지역법률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240여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준 연방국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수십 개도 아니고 240여 개나 되는 지방 국가들의 지역법률들에 대한 통제를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여야 하는 국가경영 불능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기본권 보호정도가 달라지므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원칙인 평등원칙을 파괴하게 되어 균형발전에 반한다”며 “세계에서 연방의 卅(국가)나 地域국가(準州(자치공동체 등) 말고 그 밀의 시군구에 까지 지방법률 제정권을 부여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 헌법적 금기 시도?

이광윤 교수는 “제40조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는 규정에서 입법권을 국민이나 국회가 아닌 주민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지방재로의 분권이 아닌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분권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적 분권이 아닌 정치적 분권을 의미하므로 연방 내지 준 연방으로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면 헌법 제1조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형태의 변경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금기사항”이라며 “이러한 헌법적 금기사항을 단순한 헌법 개정으로 깨면서 국가형태를 바꾸는 것은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 했다.

이 교수는 “수 백 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종교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파트너를 바꿔 가면서 분탕질 하였던 복수전에 얼마나 민족의 긍지를 짓밟히고 신음하였던 지를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후 민족정신이 자각된 독일은 수십 개로 통합된 뒤 독일 통일을 이루어 오늘날의 연방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했다. 또 “이태리 남부를 통일하여 전국통일을 위하여 헌납한 가리발디의 활동을 비롯한 이태리의 통일 운동(Risorgimento)의 정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스페인의 지역 국가(준 연방국가) 역시 통합 과정을 통하여 지역 국가가 탄생한 것”이라며 “피를 많이 흘리고 얻어낸 삼국통일 이래 세계에서 유래 없는 동질성을 지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단일민족 국가를 단순한 헌법 개정을 통하여 분열시키겠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정중섭 의원(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과 최대련 교수(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전했다.

정중섭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버려둔 채, 청와대는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청와대 주도의 개헌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헌의 시기도 압박해있는 지방선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락적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련 교수는 “

개헌을 방지해서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대 근거를 이야기한 후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 개진으로 인사말을 대신 한다”고 했다.

또 행사에서는 토론 시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조은식 기자

“개헌특위 자문위 시안의 문제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서는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독교 중심으로 바른 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모여 첫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한국교회안론회 제공

(사)세기총, 제6차 정기총회 및 취임예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가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세기총 임원 및 정회원과 국내 및 해외 14개국에서 온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예배를 수석상임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의 기도와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의 성경봉독, 예다미합창단의 찬양과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마6:9-10의 본문으로 “한국교회 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 통일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기총은 전 세계에 있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2부 정기총회 회무처리는 수석상임회장의 정서영 목사의 환영사, 감사 김춘규 장로의 내빈소개,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의장인사, 상임회장 유영식 목사의 개회기도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회계보고를 처리하고 사상식과 감사패 증정을 하였다.

대표회장 선출은 수석상임회장 정서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신임대표회장으로 박수로 추대됐다. 그리고 임원인준 및 6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과 정관개정위원 선정의 건을 처리하고 공동회장 심평중 목사가 제6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취임예배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같은 장소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와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출애굽기 19:3-6의 성경봉독과 들레사모합창단의 찬양이 이어지고 백석대학교총장이며 예정대신 증경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지도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장종현 목사는 “오늘의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점

점 잃어가고 있기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라고 그 뜻을 동역자들과 나누고 설득하고 이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증경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황의춘 목사의 이임인사와 정서영 목사의 취임인사 및 깃발 인수인계를 하고 격려사에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축사에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미기총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 재일한 한국인기독교연합회직전회장인 이병용 목사, 유럽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사무총장 김효동 목사가 하고, 공로패를 직전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와 직전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에게 증정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신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세기총은 750만명 디아스포라와 함께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올 한해에도 해외에서도 미국, 일본 등 각처에서 통일기도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회장은 아울러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도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고 세기총은 5회기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장했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으며 특별히 세기총이 시기적으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와 회원들의 기도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세기총은 제6회기의 출발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뜻에서 총회 및 취임예배시 단체 및 개인이 보내는 쌀 축하화환과 기타 선물을 가지고 본 회 임원들과 대한민국이주민 봉사단인 다문화가정 회원들과 함께 밥퍼 봉사를 서울역 부근 밥과봉사단체인 신생교회에서 2018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질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부활절연합예배 4월 1일 연세대…장종현 목사 설교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이영훈 목사)가 오는 4월 1일 주일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란 주제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CCMM빌딩에서 있었다.

이경욱 목사(사무총장, 예정대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재형 목사(기획위원장, 예정개혁 총무)와 김진호 목사(준비위원장, 기성 총무)가 각각 기도와 경과보고를 했고, 이영훈 목사(대회장, 기하서 총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부활절의 영적 의미를 찾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북미회담이 잘 되면, 내년 부활절 예배는 평양에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부활영성을 갖고 통일을 향해 나가는 기초를 만드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교는 장종현 목사(백석대 총장, 예정대신 증경총회장)가 맡아 전한다.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조직의 원칙에 대해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60여개 교단이 연합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이는 최근 부활절연합예배의 전통으로서 교단들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최선의 방식”이라 전했다.

또 이번에도 부활절 영상공모전이 진행된다.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 응모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3월 22일 1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의: KCC6215@hanmail.net 박용국 기자

“지역사회, 에큐메니칼한 협력목회 필요”

NCKK,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 기자간담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중선, 기관: 이하 NCKK 교육위)가 16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NCKK 교육위는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에큐메니칼한 협력목회의 내용과 구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 교회중심주의와 교파중심주의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의 모델을 건설적으로 극복하고, 한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지역교회들이 상호의존성을 강화해 공동의 협력목회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에큐메니칼 목회론과 목회구조의 형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세미나 과정을 준비해 지역교회들을 섬기고자 한다”

고 했다.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의 목표는 분명하다. NCKK 교육위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 ▶지역교회의 에큐메니칼한 목회 내용과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 ▶에큐메니칼 목회론(예, 마을 목회론, 작은 교회론 등)에 대해 교육 ▶각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에큐메니칼 목회의 내용과 구조 개발 ▶각 지역 사례들을 발표해 상호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등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1단계: NCKK와 관련된 9개 지역교회협의회와 협력, 지역별 에큐메니칼 목회 세미나 개최 ▶2단계: 지역별 세미나 이후 후속 과정으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상황에 맞는 에큐메니칼 목회내용과 구조를 창출 ▶3단계: 9개 지역교회협의회와 연합세미나를 통해 상호 배움의 장을 만들



NCKK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가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16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고 한국교회에 에큐메니칼 목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 ▶4단계: 3~4의 광역권별로 모델이 될 지역을 선정, 훈련캠프를 운영해 현장실습 제공 등이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흥정 목사

(NCKK 총무)가 인사 및 취지 설명을 하고, 김영철 목사(교육위 부위원장)와 한창승 목사(지역NCC 전국협의회 총무)가 각각 경과보고와 지역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은식 기자

연세대 연신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브레인OS연구소’와 산학협력체결 조인식 예정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권수영 학장)은 오는 3월 21일 오전 11시 원두우 신학관 4층 회의실에서 브레인OS연구소(대표 안진훈)와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향후 뇌분석 창업전문기관인 브레인OS연구소와 창업촉진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용하며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세대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강조하는 3C, 즉 기독교 정신(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연결성(Connectivity)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원두우 신학관 지하 2층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간인 ‘원두우 라운지’를 오픈할 계획이다. ‘원두우’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 이름으로, 향후 원두우 라운지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신학대학원 부설기관

인 상담·코칭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심리적 지원과 진로코칭을 받아 실제로 사회적기업 창업이 가능한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브레인OS연구소의 창업촉진 시스템은 참여자들의 뇌인지적성검사(BOSI)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적기업의 창업가에 적합한 유형인지, 또는 창업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창업가에 적합한 유형인지를 찾아내어, 누구든지 창업가나 공동창업자가 되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준다.

권수영 학장은 “암울한 시기 조선 땅에 오셔서 한국의 사회혁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원두우 선교사의 혼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 N포 세대 청년들이 또 다른 사회혁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지속가능한 현실로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식 기자



연세대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행사 장면.

연세대 제공

성결대학교에서 홍대실 권사 47주기 추모예배

성결대학교 4대 이사장이었던 “고(故) 홍대실 권사 47주기 추모예배”가 3월 15일 오후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2층 홍대실홀에서 있었다. 홍대실 권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날은 1971년 3월 2일이다.

민중기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이강춘 목사(교단 총무)가 기도를 했으며, 성결대 콘서트와이어의 특송 후에는 윤기순 목사(총회장 직무대행)가 “어떤 분이셨을까?”(막 10:4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국환 목사(교목실장)가 홍대실



故 홍대실 권사

권사에 대한 약력을 소개했으며, 윤동철 목사(총장)의 환영사와 김중현 목사(이사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유족대표인 고병현 회장과 김두성 목사(경증 총회장)의 추모사가 있었고, 나세웅 목사(평의원의장)가 축도를 함으로 추모예배를 마쳤다.

한편 홍대실 권사는 본인은 평생 반석치마 회색저고리 한 벌로 생활하고 신발은 터진 고무신을 꿰매 신는 등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바쳐 헌신했다. 1963년 서울시 종로구 행운동에 238평의 3층 벽돌건물을 지음으로 김응조 목사를 도와 성결대학교의 전신인 성결교신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에 소유한 땅 22,228평을 학교 부지로 추가 기증하여 학교의 안양캠퍼스 시대를 열게 했다. 그밖에 홍



대실 권사는 평양 진지동교회, 강릉교회, 온양교회, 목호교회, 속초교회, 백은교회, 고길리교회, 대전교회 등 8곳의 교회를

단독으로 건축 봉헌하며 생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결교회의 발전을 위해 회상하고 봉사했다.

조은식 기자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3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아동과 전지을 교육하는 선생을 보내거나 아동을 사는 지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 1회 아동건강관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후원금을 통한 변화

1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전, 학습, 교육 및 의료에 혜택을 줍니다.

2 후원후원은 한 아이의 보고서를 넣어 꿈을 이루고 한 아이를 바꿉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9-7000

하려 할아니라”(롬 5:20,21).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주님 사랑과 주님 증거와 주님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눅 8:1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막달라 마리아는 죄 사람과 구원함을 받은 후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랑을 사함하고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게실 때에 쫓아 섬기던 여인들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게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

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막 15:44,4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25-30).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한 마디 한 마디 들으면서 회개와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눈물을 쏟고 또 쏟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②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③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④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⑤ “내가 목마르다.” ⑥ “다 이루었다.” ⑦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부터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하나 하나를 자기 몸과 자기 머리와 자기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은 눈물로 생생하게 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만큼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사랑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렸고 부

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매우 일찍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의 위험도 몸의 파란함도 새벽 잠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서 잠자고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일찍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구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요 20:1,11). 바로 그 때였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마28:6).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허브리 말로 답하기를 하니(이는 선생님이라)”(요 20:16).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나 황홀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 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요 20:17).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복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라”(요 20:18).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막달라 마리아가 수행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두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요 20:19절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요 20:19). 막달라 마리아의 생생한 부활의 증언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쌓여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명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명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19-21).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도마는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요 20:24,25). 주님의 지자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때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뵈옵고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고 뜨겁게 전할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행복한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의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격과 가장 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신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바로 막달라 마

리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토록 만나는 사람마다 두 가지 사건을 눈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이었고 폴리카프 감독님과 토마스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 뒤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회개와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고, 무덤에 찾아가서 회개와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회개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여러 종류의 죄인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던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과 “섬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회와 교회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순수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과 “섬김”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들을 온갖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주님 옆에 가까이 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 옆에 가까이 서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사탄과 죄악에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와 민족이 변화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너무나 부족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닮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와 눈물을 주님께 쏟아서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님 내 주님께.”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카프 감독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성봉 목사님처럼 순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의 삶과 소유와 생명을 향기로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부여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여!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피 묻은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우리 몸과 마음과 가슴에 지니며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되게 하시옵소서!”

영사장 형제 있는 철학동료-철학하는 아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서울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헤어져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네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바느질, 오래되고, 물품있던 것도 수놓이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요제

글: 이요제 | 그림: 박지현 | 출판: 동행 | 2014년 10월

전국 서점 및 문화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24-7052 **이마주**